

2019년 경영목표 설명회

“디지털 리더십 확보”

2019년 경영목표 설명회가 1월 2일(수) 오전 10시 30분 목동 SBS방송센터 13층 SBS홀에서 SBS 임직원 및 SBS A&T, SBS M&C, DMC 미디어 등 자회사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박정훈 사장은 2018년 각 부문의 성과를 되돌아보며 예능, 보도, 교양이 골고루 선전하여 프라임타임 2049 시청률 3년 연속 연평균 1위를 달성했다고 밝히고, SBS의 총 매출 중 광고의 비중이 50% 이하로 떨어지는 상황에서 올해에도 OTT 분야에 과감히 도전하겠다고 말했다.

박정훈 사장은 2019년 경영목표로 첫째, 드라마 스튜디오 출범, 둘째, 수익구조 혁신을 통한 생존력 극대화, 셋째, 디지털 영역에서의 영향력 강화, 세 가지를 내걸었다.

박정훈 사장은 올해 1분기 중 드라마 스튜디오 설립을 완료하고 슈퍼 IP 제작으로 추가 수익 창출/킬러 콘텐츠 4개 이상 제작/글로벌 OTT 공급 작품 3개 이상 제작을 목표로 제시했다. 또 수익구조 혁신에 대해서는 경쟁력 1위를 통한 광고 3,800억 달성/재송신, 유통, 사업 등 비 광고 매출 증대/계열사 거래구조 개선 등으로 레거시 미디어의 생존력을 극대화하자고 말했다.

박정훈 사장은 상반기 중 OTT 연합 플랫폼 출범 등을 통해 SBS의 디지털 리더십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설명회에 앞서 진행된 2018년 하반기 작품상 등 시상식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2018 하반기 작품상 최우수상

〈백종원의 골목식당〉(이관원, 정우진)

2018 하반기 작품상 우수상

〈그것이 알고 싶다〉 '은혜로 교회' 2부작(장경주) |
〈서른이지만 열일곱입니다〉(한정환) | 〈SBS 8뉴스〉
'끝까지 판다'팀(정명원, 이병희, 김종원, 한세현, 박하정,
정성진, 조창현) | 〈집으로 가는 길 소이현입니다〉(박형주) |
비디오편집 〈No 플라스틱 챌린지〉

2018 하반기 작품상 특별상

〈그것이 알고 싶다〉 작가 황채영 | 〈영재발굴단〉 패널 노규식 |
〈백종원의 골목식당〉 백종원 | 〈SBS 골프〉 해설위원 김재열 |
〈여유각사별〉 작가 강은경 | 〈서른이지만 열일곱입니다〉 연출
조수원, 작가 조성희

2018 하반기 인센티브상

〈서른이지만 열일곱입니다〉 | 〈궁금한 이야기 Y〉 |
〈그것이 알고 싶다〉 | 〈미운 우리 새끼〉 | 〈집사부일체〉

〈정글의 법칙〉 | 〈동상이몽 2-너는 내 운명〉 |
〈불타는 청춘〉 | 〈백종원의 골목식당〉 | 〈런닝맨〉 |
〈두시탈출 컬투쇼〉 | 〈봄봄파워〉 | 〈박소현의 러브게임〉 |
〈김영철의 파워FM〉 | 〈김용민의 정치쇼〉 |
〈이숙영의 러브FM〉 | 〈서울재즈페스티벌〉 |
〈슈퍼콘서트 in 타이페이〉 | 〈팬들의 전쟁, 더 팬〉 |
〈TV 동물농장〉

2018 하반기 시청자만족도(ASI) 대상

〈그것이 알고 싶다〉

2018 하반기 비전실현상

홍보팀 김희훈 | 정책팀 문준모, 이용정 | 라디오ICP 소속
정한성 | 드라마3EP 소속 김재현 | 탐사보도부 박세용 |
송출기술팀 신호

2018 하반기 특별공로상

SBS디지털뉴스랩 전략콘텐츠팀 이아리파 | SBS콘텐츠허브
콘텐츠투자사업팀 이미우 | SBS플러스 스포츠전략팀 김경수

2018 4분기 특종상

금상: 스포츠부 김영성, 이정찬, 사회부 박재현,
SBS A&T 영상취재팀 최준식
은상: 탐사보도부 최재영 | 사회부 박재현
동상: 경제부 박민하, 김혜민 | 경제부 유병수

2018 4분기 기획보도상

금상: 탐사보도부 '끝까지 판다'팀 정명원, 이병희, 김지성,
김종원, 한세현, 유덕기, 박하정, 정성진
은상: 뉴미디어제작부 심영구, 김학휘, 안혜민 |
탐사보도부 최고운, 정치부 민경호
동상: 8뉴스부 김흥수

2018 4분기 뉴미디어상

금상: 스포츠부 이정찬
은상: 뉴미디어뉴스부 이현식
동상: 사회부 안영인



SBS의 미래를 책임진다! 신입사원 32명 입사

1월 2일(수) SBS의 미래를 책임질 32명의 신입사원이 사령장을 받았다. 사령장 수여식에서 박정훈 사장은 “어려운 관문을 뚫고 들어오느라 고생 많이 했다”고 축하 인사를 건넨 뒤, “여러분은 집안의 굉장한 자랑거리 이리라 생각한다. 그 기대를 저버리지 말고 계속 잘하길 바란다. 초년생 시절엔 스피치처럼 많이 흡수해야 한다. 선배들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SBS의 자랑스러운 대표 주자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들은 2박 3일의 연수를 거친 후 소속 부서에서 일하게 된다.

신입사원들은 SBS에 입사하게 된 것에 대해 “인생 첫 라디오 프로그램 <기쁜 우리 젊은 날>을 만든 곳에서 그 프로그램을 만드셨던 선배님께 배우고 성장하게 돼 가슴 벅차다(임광현)”, “지금의 설렘과 기쁨을 기억하며 초심을 잃지 않는 프로듀서가 되겠다(김상우)”, “10년 넘게 꾸민 꿈을 내내 놓지 않고 여기까지 와준 나 자신

에게 수고했다고 말해주고 싶다(이은솔)”, “최선을 다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다(유정찬)”, “감사하고 설레는 기분만큼 많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겠다(이명재)”고 소감을 밝혔다.

신입사원들이 입사 전 바라본 SBS는 “지상파 중에 가장 젊고, 변화하기 위해 많이 노력하는 방송사(박주연)”,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대와 소통하려는 방송사(이상은)”, “뉴스 측면에서 가장 균형적인 올드 미디어를, 가장 재밌는 뉴미디어 콘텐츠를 가진 곳(김덕현)”, “시사교양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새로운 문법을 만들어낸 방송사(배진희)”였다. “멀리서 SBS 로고만 보여도 가슴이 뛰고 발바닥이 간지러웠다(김수민)”고 말한 사원도 있었다.

신입사원들은 3개월간의 인턴십 동안 “나이를 불문하고 계속 공부하는 선배님들의 모습에 자극받았다(배민선)”, “혼자라면 불가능한 일도 다른 구성원과 협력해

가능하게 만드는 모습을 매일 목격했다(안희재)”, “입사 전에는 무색무취한 언론이라고 생각했는데, 무색무취란 균형 잡힌 언론이라는 뜻을 깨닫게 되었다(유수환)”고 말했다. 또 SBS가 “배우고 싶고, 닦고 싶은 선배가 정말 많은 회사(전연남, 한소희)”, “좋은 구성원이 모여 있는 회사(김민형)”, “아침 샌드위치와 주말 식사가 진짜 맛있는 곳(김주원)”임을 느꼈다는 사원도 있었다. 신입사원들은 앞으로 “끊임없이 도전하고, 꾸준히 발전해나가는 SBS를 만들겠다(최문규)”, “시청자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한 곳을 만들겠다(유선명)”, “입사 동기들과 함께 한국 역사를 다 쓸어버리겠다(김명교)”, “국내 넘버원 지상파 방송사로, 해외에서는 글로벌 콘텐츠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배민선)”고 당찬 포부를 밝히며 연수원으로 가는 버스에 올랐다.

출: 출발을 위한 준비를 끝냈습니다.

근: 근면 성실한 신입사원의 자세를 잃지 않으며

갈: 길게, 그리고 더 높게 뻗어나갈 SBS를 만들어가겠습니다.

- 황돈희

S: Special. 누구보다 특별하기 위해서

B: Basic. 언제나 기본에 충실하고

S: Sincere. 매 순간 진심으로, 변치 않겠습니다.

- 김형래

산: 신난다! 재미난다! 라는 말이

입: 입에 붙어 있는 요즘

사: 사는 게 바로 이런 것 이라고구나 라는 걸

원: 원 없이 느끼게 해주는 SBS!

- 권도엽

산: '신의 직장'이라던데

입: 입사해보니까 어때?

사: 사람들 말처럼 그렇게 좋은 회사야?

원: “원 없이 칭찬해도 모자람!”

- 선우동혁

S: 선배들의

B: 보물이 될

S: 신입사원 들어왔습니다!

- 김민철



SBS의 한 해를 정리하고 축하하다

<SBS 가요대전>, <SBS 연예대상>, <SBS 연기대상> 성황리에 막 내려

<SBS 가요대전>, <SBS 연예대상>, <SBS 연기대상>이 SBS의 한 해를 결산하며 2018년을 화려하게 마무리했다.

12월 25일(화), 그 첫 테이프를 끊은 <SBS 가요대전>은 최강의 라인업과 다채로운 콜라보 무대로 “역시 가요대전은 SBS”라는 평가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었다. 한류 열풍에 주목하여 2018년의 슬로건을 ‘더 웨이브’로 정한 <SBS 가요대전>은 방탄소년단, 엑소, 워너원, 레드벨벳, 워너 등 한 자리에서 보기 힘든 18팀이 모여 환상의 무대를 선사했다. 한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한정 스페셜 스테이지와 올 한 해 아티스트들의 활약상을 한 번에 살펴볼 수 있는 다채로운 무대는 시청자들의 크리스마스를 풍성하게 만드는데 충분했다.



<SBS 가요대전>은 2049 시청률 5.1%를 기록, 이날 방송된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케이블 채널의 전 프로그램을 통틀어 시청률 1위에 오르며 화제성을 입증했다.

이를 이어 <SBS 연예대상>이 12월 28일(금) 상암동 SBS 프리즘타워에서 진행되었다. 올 한 해 SBS는 모든 예능이 골고루 눈부신 활약을 펼친 만큼 훈훈한 분위기와 함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었다. 가장 관심이 집중됐던 대상은 일요일 오후시간대 SBS 예능의 부활을 이끈 <집사부일체> 이승기에게 돌아갔으며, 올해의 프로그램상은 이번 없이 온 방송사 통틀어 현존 최고 예능인 <미운 우리 새끼>가 수상했다.

<SBS 연예대상>은 시청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반영하듯



2049 시청률도 동시간대 1위를 기록했다. <SBS 연예대상> 1부(21:00~22:33)는 2049 시청률 3.88%, 같은 시간대 KBS2는 3.78%, MBC 1.55%, JTBC는 0.71%를 기록했다. 2018년의 마지막 날은 <SBS 연기대상>이 장식했다. 관심을 모은 대상은 <키스 먼저 할까요?>의 감우성과 김선아가 공동 수상하여, 두 사람은 베스트커플상에 이어서 2관왕에 올랐다.

<SBS 연기대상>은 3사 연기대상 중에 가장 깔끔하게 진행되었다는 호평을 들으며, 1, 2부 2049 시청률 3.4%, 4.1%를 기록, 같은 시간에 격돌한 <KBS 연기대상>을 가볍게 제쳤다. <KBS 연기대상>은 3.1%, 3.5%에 머물렀다.



인터뷰
이 사람



"딥러닝 기술 활용해 수익 내는 것이 목표"

- 방송기술대상 수상 홍순기 박사(미디어기술연구소)

미디어기술연구소 홍순기 박사가 지난 12월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주최 '제3회 방송기술대상' 시상식에서 영예의 대상을 받았다. SBS로서는 세 번째 대상 수상이다. 홍순기 박사는 딥러닝 기술을 활용한 클립 생성 시스템을 개발하여 방송 부가서비스에 최초로 적용했다.

대상 수상 소식을 들었을 때 기분은?

'내가 왜?'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딥러닝을 방송서비스에 활용하는 것은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수익화 등의 성과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보니, 앞으로 방송서비스에 접목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길을 개척하라는 뜻으로 주신 것 같다. 기쁨보다 책임감이 더 크게 느껴졌다. 현재 국내에서 딥러닝을 이용해서 수익을 많이 내는 곳은 없는 실정이므로,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

개발한 기술의 이름이 바뀌었다.

초기에는 인공지능 클립 생성 시스템(Artificial Intelligence Clip Export System: ACES)이라는 이름을 썼다. 우리 시스템이 사내외적으로 'ACE'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작명했는데, 같은 약어를 가진 시스템들이 많아 '미디어 큐레이터(Media Curator)'로 바꾸었다. 우리 시스템의 핵심은 미디어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가치 있는 정보만을 모아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미디어 큐레이터'에 대하여 설명 부탁한다.

영상을 입력하면 입력된 영상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부분'을 찾아 클립 형태로 제공해주는 시스템이다. 앞서 말한 '사용자가 원하는 부분'은 서비스에 따라 자유롭게 정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작진(사용자)이 원본 영상에서 사람들이

달리는 장면(원하는 부분)을 찾길 원한다면, 미디어 큐레이터는 이를 자동으로 찾아 클립 형태(구간 정보)로 제공해 준다. 또한 사용자를 시청자로 정의하고 원하는 부분을 재미 있는 부분으로 정의한다면 핫클립을 생성해 낼 수도 있다.

얼핏 들으면 만능 요술 상자 같은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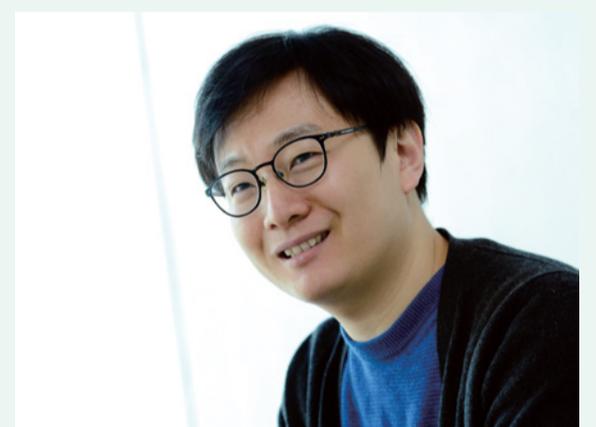
최신 기술들도 마찬가지지만, 정확도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그만큼 어려운 기술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긴 원본 영상에서 사용자(제작진 또는 사업자)가 원하는 부분을 쉽게 찾아낼 수 있게 클립형(구간 정보)으로 복수의 몇 개를 추천해 주고, 사용자가 직접 그중에서 알맞은 영상을 골라서 사용하는 방식이 최선이다. 당연히 정확도를 올리기 위해 계속해서 연구해야 한다.

이 기술에 대해서 사람들이 꼭 알았으면 하는 것은?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딥러닝 기술은 사람이 꼭 해야 할 일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어쩔 수 없이 하는 일, 또는 못 하는 일을 대신해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동화 시스템의 부재로 어쩔 수 없이 사람이 하는 일, 또는 인력과 예산의 부족으로 아예 하지 못 하는 일 등에 대해서는 딥러닝 기술을 통해 사람들이 다른 중요한 일에 더 많은 시간과 관심을 쏟을 수 있게 도와주고, 적은 인력과 예산으로 다양한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목표이다.

앞서 수익화에 대해 얘기했는데 방안이 있는지?

요즘 대세인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수많은 옛날 작품이 여전히 시청자에게 사랑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수많은 작품 중에 시청자들이 좋아할 만한 목적을 가리는 일을 사람이 일일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미디어 큐레이터'를 활용하여 옛날 작품에서 핫클립을 생성한 후, 사



용자에게 추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생성한 핫클립을 유튜브를 통해 유통한다면 일정 부분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제작진이 허락한다면 비방송분 영상에서 시청자가 좋아할 만한 클립을 생성하여 추가로 유통하는 방법으로도 일정 부분의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올해 계획은?

굉장히 똑똑한 머리를 가진 아이일지라도 학습지를 포함한 일체의 공부부를 하지 않는다면, 또는 시험 범위 밖의 내용을 공부한다면 해당 시험에서 좋지 못한 점수를 받을 것이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학습지에는 꼭 정답지가 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틀린 문제에 대해서는 아이가 정답지를 보고 문제를 푸는 방법을 익혀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올해 초에는 SBS의 영상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다양한 요청에 대응할 수 있는 학습 데이터를 생성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그 후에는 생성된 학습 데이터를 활용하여 '미디어 큐레이터'의 성능을 향상하는 작업과 적용 범위를 늘리는 작업을 병행해서 진행하려고 한다.



변호사이자 SBS 조직원으로서 재미있게 근무 중

- 정책팀 4인의 법무 어벤저스(안재형 담당, 박진선, 이민정, 심성우)

1명의 변호사로 시작해서 4명까지 늘었다. 법적인 분쟁이 잦아진 건가?

법무에서 담당하는 업무는 크게 나누면 방송제도와 관련된 정책 관련 업무/소송 및 언론중재 관련 업무/계약서 및 기안 검토 업무/기사 및 대본 검토 업무/경영 사항 관련 검토 업무/각종 이슈에 대한 법률 자문 업무/사내 법률 교육/준법 지원인 업무/법무 네트워크 관리 업무 등이다.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분쟁의 경우 2010년 10~20건 정도였는데 2018년 45건이 처리되었다. 소송 건수도 2005년경 10개 남짓에서 2018년에는 25건이 들어왔다. 계약서 검토 관련해서도 예전에는 단순한 외주 계약, 협찬 계약 등이 주였다면 이제는 합작법인 설립, 투자 계약, 신사업 계약 등 다양하고 정밀한 검토가 필요한 계약이 많아졌다. 그만큼 대내외 적으로 SBS를 둘러싼 제도적, 경쟁적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매일 처리해야 하는 일이 밀리다 보니 계약서 검토나 기안 결재가 늦어지기도 하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양해를 구하고자 한다. 가능하면 법무검토 기간을 조금 더 길게 잡거나, 기안 상신 이전에 미리 자문을 받는 방식을 통해 업무 스케줄을 조정해주셨으면 한다.

각자 소개를 부탁한다.

안재형: 2005년 SBS에 입사했는데, 그 때가 소위 전관이 아닌 변호사들이 기업에 들어가기 시작한 초창기였다. 관련 업계에서 가장 오래 재직하고 있는 변호사가 아닐까 싶다.

박진선: 2011년에 입사했다. 채송신 사건 및 정책팀 현안에 대한 자문, 현업부서의 각종 소송을 담당하고 있다. 지식재산, 특히 방송통신 분야는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관련 논의가 빨리 진행되고 이슈 역시 계속 바뀌기 때문에 해당 분야의 발전 속도에 맞추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디어 업계 현안과 분쟁의 최전방에 서있는 정책팀의 구성원이자 사내 변호사로서 재미있게 근무하고 있다.

이민정: 2016년에 입사했다. 2013년 사법연수원 수료 후 공익법무관으로서 서울고검, 전북지방경찰청에서 대한민국과 행정청에 제기된 소송을 방어했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민사, 형사, 행정, 가사 소송을 수행했다. SBS 입사 후 언론 소송과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사건을 처리해왔고 현업 부서의 계약서 및 기안 검토를 병행하고 있다.

심성우: 2018년 여름에 입사하여 아직 SBS의 일원이라는 점이 마냥 신기한 신입 변호사다. 업무 분야를 가리지 않고 항상 준

비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도록 하겠다.

사내 변호사의 특징은 무엇일까?

‘법무에 관한 전문성’을 지닌 ‘조직원’이다. 그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SBS 사내 변호사들은 다른 일반 사내 변호사와 달리 소송도 직접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변호사로서의 본질적 능력을 갖출 필요도 있고, 자신이 직접 해봐야 로펌 변호사의 업무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다. 사내 변호사는 회사 및 회사가 당면한 과제, 회사의 업무를 잘 알고 있어야 하며, 그래야 즉각적인 자문을 할 수 있다.

한편, 리스크 발생에 관한 마지막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기 때문에 책임이 따르는 등 부담도 많지만, 감수해야 할 부분이다. SBS에서 드라마, 예능, 교양, 보도, 기술,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최고 인재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한다. SBS 구성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무엇인가?

박진선: <썩> 손해배상 소송이 기억에 남는다. 당사가 2012년 말 CJ E&M에 대하여 저작권법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제기한 사건인데, 1, 2심에서 리얼리티 방송 프로그램의 경우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어 저작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패소하였다. 그러나 소를 제기한지 5년만인 2017년 11월 대법원에서 리얼리티 방송 프로그램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하고 사건을 다시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했다. 이 사건은 국내 최초로 리얼리티 방송 프로그램의 저작물성에 대하여 정면으로 다투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과거 포맷에 대한 법적 개념 정의나 보호 규정이 없기 때문에, 방송 포맷은 기존 판례의 태도인 아이디어의 영역으로 보아 법적인 보호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통설이었다. 그러나 이 판결을 통해 대법원이 명시적으로 리얼리티 방송 프로그램의 저작권법상 보호를 인정했기 때문에, 국내외적으로도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 이를 계기로 콘텐츠 제작자에게 유무형의 투자



왼쪽부터 이민정, 심성우, 안재형 담당, 박진선

및 창작 요건에 상응하는 보상이 주어져, 수준 높은 다양한 프로그램의 창작이 활성화되고, 나아가 방송시장의 공정한 거래를 통해 관련 산업 전체가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민정: 여대생 청부살해 죄로 복역 중인 자가 교도소 수감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8뉴스> 보도에 대해 당사자가 정정, 반론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최초 언론중재위원회 단계에서부터 1, 2심을 거쳐 마지막 대법원 단계까지 직접 수행했고 결과도 좋았기 때문에 유독 기억에 남는다.

안재형: 2010년 월드컵 대회 독점 중계 관련해서 방통위를 상대로 했던 행정소송, IB스포츠와의 소송 등 예기치 않은 결과가 나왔던 사건들이 뼈아프게 느껴진다. 2009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었치락뒤치락 진행되고 있는 케이블 SO를 상대로 한 채송신 소송은 이제 지칠 지경이다.

올해 현안은 무엇인가?

드라마스튜디오 설립, 연합 OTT 플랫폼 설립 등 SBS의 구조개편, 새로운 비즈니스 시도와 관련된 업무가 증가될 것 같다. 또한 프로그램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되고 그 보상이 적절한지, 프로그램의 방송, 그리고 유통과 관련하여 누가 저작권료를 부담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외주제작사, 작가, 연기자, 플랫폼 사업자 등과의 분쟁도 예상된다. 각종 사건, 사고가 많아지는 요즘은 모든 이슈에 있어 과거처럼 원만히 해결되기보다는 소송을 통해 승패를 가리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사후적인 분쟁 처리가 아닌 사전 예방을 위한 방안에 대해 고민 중이다.

BJC 올해의 방송기자상 두 개 부문 수상



SBS가 12월 12일(수) 한국방송기자클럽이 주최한 제27회 '2018 올해의 방송기자상' 시상식에서 두 개의 수상작을 냈다. 탐사보도부 끝까지 판단팀의 에버랜드 수상한 땅값과 삼성 합병, 삼성 차명 부동산과 흔들린 조세정의 연속보도(정명원, 이병희, 김지성, 박세용, 김종원, 한세현, 장훈경, 유덕기, 박학정, 정성진, 조창현)가 뉴스 부문 올해의 방송기자상을 받았다. 또 뉴미디어제작부 비디오머그와 마부작침팀의 '2018 예산회의록 전수분석, 예산심의 왜 그렇게 하셨어요?' 등 시리즈(정형택, 권지윤, 엄민재, 박수진, 김학휘, 안혜민, 주범, 이용한, 정상보, 김경연)가 뉴미디어 부문 올해의 방송기자상을 받았다. 올해의 방송기자상은 5개 부문에 걸쳐 총 32편이 응모했고 시의성, 사회적 영향력, 취재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7편이 최종 수상작으로 결정됐다. SBS는 최다 수상 방송사가 되었다.

<그것이 알고 싶다> 박지은 PD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



이일재 AD, 박지은 PD, 강상현 방송심의위 위원장, 황채영 작가, 박정은 취재작가

<그것이 알고 싶다> '외부인들 - 통제구역 안의 비밀거래'(연출: 박지은)가 12월 19일(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주는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을 받았다. <그것이 알고 싶다> '외부인들 - 통제구역 안의 비밀거래'는 수술실에서 벌어지는 무자격자들의 대리 의료행위 실태를 취재하여 의료계의 구조적

이고 집단적인 불법행위를 고발함으로써 제도 개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기관의 감독과 수사, 국회 입법에 필요한 동력을 제공하는 데 기여했다.

한편, <그것이 알고 싶다>는 올해 '칼잡이의 비망록, 외상센터의 민낯을 기록하다'(연출: 이큰별),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 사라진 고문 가해자들'(연출: 장경주), '죽어도 사라지지 않는, 웹하드 불법동영상의 진실'(연출: 김병길), '화태에서 온 편지 - 국가는 왜 날 버렸나?'(연출: 이큰별) 등 다섯 편이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을 수상하여 단일 프로그램 최다 수상을 기록했다.